

1/24/16, 1/31/16

설교 제목: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이사야 58:1-12

- (사 58:1)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 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 (사 58:2)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 (사 58:3)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절관주** 사 22:12
- (사 58:4)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 (사 58:5)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퍼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 (사 58: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 (사 58:7)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 (사 58:8)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절관주** 시 85:13
- (사 58:9)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 (사 58:10)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 (사 58:11)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 58: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절관주** 사 30:13, 암 9:11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건득하면 금식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흔히 보거나 듣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더 빨리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느 목사님은 금식하면서 떼를 쓰면 하나님도 어찌지 못하고 들어 주신다고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친히 금식에 대해서 언급하신 대목으로 당신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당신이 기뻐하는 금식을 올렸을 때 주실 복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책을 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당시의 시대적, 상황적인 배경을 알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바울이라고 불릴 정도로 학식이 뛰어난 선지자로서 웃시야 왕이 죽던 BC 739 년에서 산헤립이 죽은 681 년까지 약 59 년간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사역을 한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BC 722 년 앗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 유다도 앗수르를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의 공격에 위태위태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당시 앗수르는 디글랏빌레셀 왕 치하에서 아주 강성했습니다.

앗수르 디글랏빌레셀 왕은 동쪽 정벌을 마친 후 서쪽으로 눈을 돌려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부분을 정복하였고 지중해 연안의 작은 나라들까지 침공하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 유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즉 애굽 등 주변의 강대국과 동맹을 맺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유다 백성을 향하여 죄 지은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죄와 불의, 도덕적 문란의 죄를 짓고 있는 유다를 필히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멸망시키는 도구로 지금 남 유다가 벌벌 떨고 있는,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당시 최강대국
앗수르가 아니라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세력이 미약했던 바벨론을 쓰실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그 심판을 통하여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BC 586 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사 58:1)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 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우쳐 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정작 그들 자신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사 58:2)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했습니다.

신앙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 해집니다.

(사 58:3 상)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금식도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해 보기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꿈쩍도 아니하신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열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왜 이들의 금식 기도를 열납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사 58:3 하)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사 58:4)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겉으로는 금식하면서 슬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금식한다고 하면서 오락을 추구하고 자신이 금식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온갖 일을 떠 맡기며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또 논쟁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 속에서 금식의 근본 정신인 회개하고 애통해 하는 마음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금식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형식만을 갖추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한 것입니다.

금식의 모양새만 있을 뿐 근본 정신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금식의 근본 정신이 배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금식 기도한다고 하였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마음 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리 만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드리고 있는 예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형식에 따라, 순서대로, 습관대로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듣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열납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 58:5)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퍼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경건의 형식만 갖춘 금식 즉 머리를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땅에 뿌리고 앉아 슬퍼하는 시늉만 내는 금식으로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금식은 하나님께서 열납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 58: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 58:7)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밥을 먹느냐 안먹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밥을 먹고 안먹고가 중요한 이슈라면 하나님께서는 밥을 어떻게 굶을 것인가, 또 며칠을 굶을 것인가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가 물도 마시지 않고 삼일을 굶으면 내가 이것을 해 줄 것이고 칠일을 굶으면 이것을 해 줄 것이고 사십 일을 굶으면 이것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부당하게 투옥된 사람을 풀어 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채무를 탕감하고 담보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거할 곳이 없는 사람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을 입혀 주고 도움이 필요한 친지를 피하지 말고 도와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금식 중인데 과연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고 금식하고 있는지요?

남이야 굶든 말든, 남이야 불의로 압제를 당하든 말든, 형제가 어떻게 살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금식 기도를 열납하지 않으시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없이 살 수 없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로 살아 왔으면서도 그런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덜 가진 사람 등등 사회적인 약자들을 무시하고 압제하며 업신여기고 삽니다.

우리는 여지껏 이렇게 살아온 죄를 통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금식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금식이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금식은 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심을 깨닫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금하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은 나는 밥을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 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히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붙잡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당신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을 때 주실 복들을 약속하십니다.

1) 회복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사 58:8)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는 말씀은 어둡고 괴로운 절망의 밤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비취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는 말씀은 고난으로 인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상처와 아픔들이 급속히 치유될 것이라는 말씀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라는 말씀은 백성들이 공의를 품고 전진하게 될 것이며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어둠과 절망의 자리를 빛과 희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고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2)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사 58:9 상)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 인도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사 58:11)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까지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며 우리의 육체를 강건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항상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만족과 육체의 강건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4) 풍요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사 58:11)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지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다 말라 버렸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다시 터져 물댄 동산 같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풍요가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40 일 작정 금식 기도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올려드려 교회 위에,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본문에서 약속하신 물 댄 동산의 복이,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5) 마지막으로 그들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 58: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나라 잃은 슬픔과 서러움, 포로로서 당해야 하는 아픔과 수치 등으로 인한 절망과 낙심, 두려움에 사로 잡혀 소망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국가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릴 때 그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인 국가를 회복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제나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과 마지막 날, 하나님 날에 일어날 일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입니까?

너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구하십시오.

(막 8:3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리는 자에게 우리의 가장 절박한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드림으로 이 복된 약속을 받아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